

제단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거룩해짐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단이 피로서 거룩해지며, 바로 그와 동시에 그 제단은 거기에 접촉하는 제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십자가는 제단이라고 했다.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놓아야 할 제물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별도로, 그리고 모두 모아서 함께 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1. 몸에는 머리가 있다.

인간의 이해력의 좌소인 두뇌를 지닌 머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머리와 그 머리의 모든 생각을 모두 제단에 올려 놓아야 한다. 나의 이성과 생각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려야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시아래 놓아 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후 10:5).

2. 머리에는 또한 눈, 입, 귀 등 여러지체들이 있다.

눈을 통해서 가시적인 세상과 또한 그 정욕과 접촉한다. 그러므로 눈을 허망한 것들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해야 한다. 귀를 통해서는 동료 사람들과 교제속으로 들어간다. 귀 역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대화를 듣지 않도록 하며 주께서 내게 보내신 음성을 주의 깊게 듣도록 해야 한다. 입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뜻하는 바를 드러낸다. 그리고 입을 통해서 다른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입과 혀와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눈과 입과 귀와 두뇌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놓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들을 통제하거나 거룩하게 사용할 힘이 내게 없다. 십자가의 피가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맡겨야 한다.

3. 몸에는 손과 발도 있다.

손은 일을 하는 능력을 대표한다.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나의 봉사, 나의 소유들을 모두 제단 위에 올려 놓아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도록 해야한다. 나의 발은 나의 길과 나의 삶을 대표한다. 내가 택하는 길, 내가 가꾸어 가는 친구 관계, 내가 방문하는 곳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제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발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드러진 바 되었으니 전적으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고, 그를 섬기도록 차비를 갖추고 있

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돕는 “아름 다운 발”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다. 그러므로 주님과 놀라운 신령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과 함께 못박히는 것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자유를 얻고 거룩해 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4. 몸에는 또한 마음이 있다.

마음은 생명의 중심이요, 영이 거하는 죄소이다. 마음은 사람의 온갖 욕심과 열심이, 사람이 뜻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과 미움이 만나는 장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찢어 지셨다. 마음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것이 제단 위에 올려 놓아져야 한다. 나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고 뜻하는 권리를, 나의 정욕에 따라서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 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의지는 마음의 왕적인 능력이다. 우리의 사랑이나 미움에 의해서 의지가 지배를 받고, 다시 의지에 의하여 전인이 지배를 받는다. 그 의지를 제단, 곧 십자가 위에 놓으면 십자가와의 교제의 능력이 전인에게 확대 된다. 죄악되고 우매한 나의 의지를, 정죄 받은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다. 그리하면 예수님과 교제 속에 있는 나의 의지가 다시 살아나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나의 의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권위에 복종한다. 그 의지가 십자가에 매여 있으나 그러면서도 자유롭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음과 머리 손과 발이 모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들이 육체의 놀라운 구조 속에 연합되어 있고 그 육체 속에 영혼이 거하고 있다. 육체는 애초에 영혼의 종으로서 영이 인도하는대로 계속해서 굴복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다. 그런데 죄가 이런 질서를 뒤집어 놓았다. 감각적인 몸이 영혼을 피고 유혹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영을 질질 끌어 종노릇 하도록 전략 시켜 버렸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를 회복 시키는 유일한 길은 몸을 단 위에 올려 놓는 것뿐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뿐이다.

우리의 제단인 십자가로 올라가 죽음의 장소에서 함께 죽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죽음에 굴복시키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지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일을 절대로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복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과 그 사랑에게로 값없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 속에 있으면 그 일이 즐거움과 구원이 된다. 그러므로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구약의 제단도 피를 흘려 거룩하게 함으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린 우리를 얼마나 더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 제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되신 임재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해 준다.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제물로 드리기를 바란다.